

특하면 칼부림... 외국인 범죄 '위험수위'

매년 도내서 600여건 발생... 中 불체자가 대다수 지난 7일 중국인끼리 흉기 휘둘러 1명 크게 다쳐

제주에서 불법체류자에 의한 강력사건이 또 다시 발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오후 7시50분쯤 제주시 연동 한 주택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런모(33)씨가 또 다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주모(21)씨에게 3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른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다음날인 8일 오후 8시30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주하려던 런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점에 주목해 항공편으로 제주를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상, 형사들을 제주공항에 급파했고 이날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런씨를 긴급체포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런씨는 평소 일자리 문제로 자신을 협박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쟁모(33)씨와 모바일 메신저로 다툼을 벌이던 중, 쟁씨가 주씨를 포함해 3명을 데리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휘둘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범죄를 일으켜 검거된 외국인인은 2016년 649명, 2017년 644명, 2018년 630명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력사건에 해당하는 살인은 2016년 2명에서 지난해 9명으로, 강도는 4명에서 9명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중국인은 2016년 465명, 2017년 436명, 2018년 429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 3월 18일 오전 11시10분쯤에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주택과 택시회사 사무실에 흉기를 들

고 침입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A(27)씨가 구속됐으며, 2월 4일 오전 6시10분쯤에는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중국인 B(33)씨가 또 다른 중국인 C(5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달아났다 검거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은 "국민들이 제주에 오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올 상반기에도 불법체류자 212명이 검거됐다"며 "외국인 범죄 예방에 힘을 기울여 안전한 제주라는 인식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송은범기자

신임 서귀포해경서장에 김언호 총경

제주청 기획과장에 도기범



김언호 총경 도기범 총경

해양경찰청이 지난 8일 총경 21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한 가운데 서귀포해양경찰서장에 김언호(51) 해양경찰청 외사과장, 제주해경청 기획운영과장에는 캐나다 해양경찰청 파견을 다녀온 도기범(50) 총경이 내정됐다. 착임 일자리는 12일이다.

신임 김 서장은 1997년 간부후보 45기로 해경에 입문해 해경본부 해양경비안전국 수상레저과장, 동해해양경찰서장, 해경청 대변인, 국방대학교(국내훈련·파견) 등을 지냈다. 현 조운만 서장은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도기범(50) 과장은 2006년 경감 특채로 해경에 입문해 해경청 해상안전과장, 태안해양경비안전서장, 해경청 국제협력담당관, 해경청 외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현 송창훈 과장은 공로연수 과정에 들어갔다. 송은범기자

20대 만취 운전자 주차차량 연쇄 충돌

제주시내 주택가에서 만취한 20대 운전자 주차차량 연쇄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지방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모(23)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남씨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제주시 삼도동 주택가에서 주차된 차량 3대와 오토바이 1대, 가정집 대문까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당시 차량과 주변에 사

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205%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현재까지 150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으며 1명이 숨지고 251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비오는 날 즐기는 제주관광 장맛비가 내린 9일 우산을 쓴 관광객들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을 둘러보고 있다. 강희만기자

"산복소각장 노동자 고용승계 보장하라"

민주노총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조합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복소각장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7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돼 왔던 산복소각장을 현재 설립 준비 중인 제주시시설관리공단에 편재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편입되는 과정에서 소각장 노동자들의 전원 고용승계가 아닌 선별 채용을 얘기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탁기관인 행정이 직접 나서 고용안정 방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석기자

고립·추락·익수 등 낚시객 사고 급증

최근 3년새 89건 발생 8명 숨져... '나홀로 낚시' 속수무책

제주 연안에서 낚시를 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낚시객 연안사고(갯바위·방파제)는 2016년 25건, 2017년 32건, 2018년 32건으로 최근 3년간 89건(사망자 8명)이 발생했다. 올해에도 6월 30일 기준 10건이 발생해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낚시객 연안사고 유형은 고립이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락 13건, 익수 8건 등

의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 8일 오후 9시쯤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인근 해안에서 낚시객 S(51)씨가 바다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물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구조대를 급파해 신고 접수 2분 만에 제주시 삼양2동 감수탕 서쪽 200m 해상에서 S씨를 발견, 119에 인계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지난 5월 14일에는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에서 낚시를 하던 A(54)씨가 바다에 빠져 사망했으며,

1월 25일 오전 9시39분쯤 제주시 구업포구 방파제에서 낚시 중이던 50대 남성이 테트라포트 사이로 추락해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기도 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시기를 맞아 연안에서의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낚시에 나설 때는 물 때를 미리 확인해 물으로 나올 시간을 정하고, 낚시배를 댔을 때는 안전장비와 기상 정보를 사전에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단란주점서 난동 50대 벌금 600만원

단란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0)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5월 14일 오후 10시30분쯤 제주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47·여)로부터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그만 마셔라. 남은 양주는 보관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욕설과 함께 양주병을 던져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던 또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제2공항 계획 철회하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등은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검토한 결과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누락됐다고 할 정도로 부실하다"며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할 시 운모로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환경부 및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심의 의견인 '여러가지 대안에 대해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선정한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평가서에는 기존 논란이 된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그대로 인용 반영했을 뿐 환경부가 요구한 대안의 비교·검토는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현석기자

제주시정 소식				
2019. 7.1일부터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 대상여부 판단 기준표				
(제주시 동 지역)		(제주시 읍·면 지역)		
차종	사 레	차고지증명 대상여부(0.X)	비고	
		현재	확대시	
대형	'07. 1. 31. 이전 최초 등록된 차량(중형차)을 중고차로 구입 또는 차량을 가지고 주소변경	X	X	시행일 ('07. 2. 1)
	'07. 2. 1. 이후 대형 신차 구입	O	O	신차구입
	'07. 2. 1. 이후 최초 등록된 대형차량을 '19. 7. 1. 이후 읍·면지역에서 중고차로 구입	O	O	명의이전
중형	'07. 2. 1. 이후 최초 등록된 대형차량을 가지고 '19. 7. 1. 이후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주소변경	O	O	주소변경
	'16. 12. 31. 이전 최초 등록된 중형차량을 중고차로 구입 또는 차량을 가지고 주소변경	X	X	시행일 ('17. 1. 1)
	'17. 1. 1. 이후 중형 신차 구입	O	O	신차구입
전기차	'17. 1. 1. 이후 최초 등록된 중형차량을 동지역에서 중고차로 구입	O	O	명의이전
	'17. 1. 1. 이후 최초 등록된 중형차량을 가지고 동지역으로 주소변경	O	O	주소변경
	'19. 6. 30. 이전 최초 등록된 전기차(중형이상) 차량을 신차 구입	X	X	전기차(중형이상) 시행 예정일 ('19. 7. 1)
소형·경형차	'19. 7. 1. 이후 등록된 전기차(중형이상) 차량을 신차 구입	X	O	신규등록
	'19. 7. 1. 이후 등록된 전기차(중형이상) 차량을 중고차 구입	X	O	"
	'19. 7. 1. 이후 최초 등록된 전기차 차량을 가지고 동지역으로 주소변경	X	O	주소변경
소형·경형차	'22. 1. 1. 까지 유예함	X	X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 ☎064-728-3231~3234

서귀포시정 소식

제2회 서귀포 3분 관광 영화제 작품 전국 공모

- 접수기간: 2019. 4. 10 ~ 7. 19
- 참여자격: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일반부(대학생 및 일반인)/학생부(초·중·고) 구분
- 공모주제
- 자유주제: 서귀포의 관광·문화·역사 자원 모두를 소재로 함
- 마을문화: 서귀포의 특색 있는 마을 문화 소개
- *단순 관광지 나열식의 영상은 사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출품수: 1인(또는 1팀)당 1편
- 접수방법: 신청서 및 작품파일 이메일(3minmovie_sgp@daum.net) 접수
- 작품규격: 3~7분 내외 / mp4 / Full HD 1920×1080 이상
- 국장 또는 온라인 매체에서 상영 할 수 있는 고품질이어야 함
- 시상내역: 대상 350만원, 금상(일반/학생) 각 200만원, 은상(일반/학생) 각 100만원, 특별상 50만원
- 문의전화: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 760-2653

'아빠 약기의 인쇄 명곡' 공연 개최 알림

- 공연일시: 2019. 7. 13(토) 17:00, 19:30 / 2회 공연
- 공연장소: 서귀포김정문화회관
- 공연내역: '아빠~ 이 약기!' 생소한 약기 연주하는 익숙한 명곡을 만나.
- 연주악기: 류타, 하프, 콘트라베이스, 호른, 기타 등
- 입장료: 무료 / 전 연령 관람가
- 공연문의: 서귀포김정문화회관 ☎ 760-3792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1차 시범부터 참가자 모집

- 모집기간: 2019. 7. 8(수) ~ 7. 14(일)
- 모집대상: 초등~고등학생 / 프로그램 별 다름
- 운영기간: 2019. 7. 20~ / 프로그램 별 다름
- 프로그램: 미술교실, 생활 도자기 만들기, 요리교실, 자연유산투어, 청소년 동아리 모집 등
- 신청방법: 전화, 팩스(739-8856), 직접방문 신청 / 선착순
- 신청 및 문의: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 760-6461~6464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